□되살아나는 3S정책을 비판한다.

국민들 절망속에 되살아난 3S 향수

허상에의 열광, 희망사회 구축으로 해결해야

강 태 수
〈인천민중연합 의장〉

"일본열도가 침몰했습니다!"

국내 주식값이 500선이하로 떨어져 버리고, 재계 굴지의 매머드급 재벌기업들이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과 산업구조 재조정이라는 해일을 맞고 이리저리 휩쓸리다 부도수표를 남발하며 급기야는 도산해버리고 있음에도 장장 20분간 귀중한 저녁 9시뉴스시간을 할애하며 일본열도 침몰을 자세히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무슨 소린가 하면 한국축구가 일본을 이긴날 내보낸 9시뉴스의 앵커가 감격에 겨워 외친 첫마디가 '일본열도 침몰'이다. 눈칫빠른 보수정치인들은 불안하기만한 국내사정이야 머리 아픈데 만사 제쳐두고 소리소문도 없이 그라운드에 나타나 카메라에 얼굴한번 내비치며 갖은 포즈를 다 취하고, 선수들과 악수하는 사진찍으며 해외까지 원정가서 선거운동을 한다. 이어 앵커는 축구얘기가 끝나면서 지리하게 한국의 불안한 현실만을 보도한다. 9시뉴스가 끝나고 스포츠뉴스가 시작하면 방금전에 끝난 저녁 9시뉴스의 재탕이 시작된다.

다음날, 어김없이 조간신문들은 '일본열도 침몰, 동경대첩'이니 하는 헤드라인과 보수정객들의 사진이 교차되어 나의 시야에 들어온다. 한국축구가 일본을 제껴 아시아의 맹주의 자리를 수성했다는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한 기사와 보수정객들의 사진을 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가시질 않고 무언가 가슴속이 허전해진다. 저명한 사회학자들은 연일 승승장구하며 프랑스행 본선티켓에 안착한 축구와 최근의 고용불안, 떨어지는 주가와 핵분열하는 보수정치판이 비교되면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국민들이 축구에 더욱 더 열광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정말이지 전적으로 당연한 분석이다.

부도사태, 주가하락, 정리해고, 불황, 취업대란 등 오만가지나 되는 어두운 그림자가 사회곳곳에 드리워지고 있을 때에 국민들이 오로지 축구에만 열광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현실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더 이상 응어리지지 못하고 폭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현실의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 스트레스 풀기에 꼬박꼬박 세금띄고 월급봉투 받는 월급쟁이 서민들은 퇴근해서 동료들과 어디 포장마차라도 가서 술마실 형편도 못되고, 현실에서 오로지 정직한 납세자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적 혜택이라고는 TV시청이 전부이다. 5공시절 군사정권은 재벌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박통 때는 사치풍조라고 금지했던 칼라텔레비젼 방송을 시작했다. 이는 재벌들의 새로운 돈벌이 창출의 의미도 있었겠지만 국민들의 정권에 대한 거센 불만을 TV연속극이나 보며 잊고 살라는 의도도 다분히 포함되어 있었다.칼라텔리비젼 방송전파를 타고 반짝이던 대머리가 9시 '땡'치면 뉴스를 장식하던 그 시절부터 우리 국민들은 TV의 노예가 되었고 TV바보가 되어버렸다. 모택동이 예전에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21세기를 눈앞에 앞둔 지금의 현실은 "권력은TV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더 적절하지나 않을런지…. 그러나 대통령선거를 2달 앞둔 지금 현재 국민들이 그놈이 그놈인 대선주자 TV토론회에는 20%안팎의 시청률을 보이면서, 월드컵예선 중계에 80%이상의 시청률을 보이며 열광하는 것은 군사정권의 칼라방송

▲5공시절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개인적 요구에 따라 국민들에게 3S(스포츠,영화,섹스)등 가상이미지 허상을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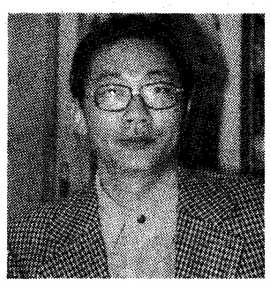
허가나 프로야구출범과 같은 현 정권의 의도된 3S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정치권력에만 집착하는 보수여·야 정치권의 적나라한 모습과 재벌에 의해 휘둘러지는 경제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과 좌절감에서 나온 전혀 의도되지 않은 저항의 모습이며 한편의 조롱이다.

국민들의 축구에 그토록 열광하는 것은 한때 타도의 대상이던 파쇼의 한축과 연합해 대통령 자리를 넘보는 노정객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현실같지 않은 현실을 굳이 외면하고자 과거로 회귀하고, 유신 독재자 '박정희'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훌륭한 대통령 1위로 당당히 부활하는 코메디를 보며, 박정희와 똑같이 인간복제를 한 사람이 경선에서 2등으로 패배하고 이에 불복해 박통의 '한국적 민주주의는 바로 이런거다'라는 걸 유감없이 보여주는데에 대한 구역질과 질타이다. 현실의 모습이 가상현실 같으니 온국민이 너도나도 '접속'해서 정보의 바다에 이승희 누드나 보기 위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다.

월드컵 골잔치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매스컴이 만든 가상이미지의 허상에 열광했던 국민들은 또 다시 절망의 몸부림을 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부터 희망을 찾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국민들은 계속해서 조롱과 야유의 소주병을 그들의 그라운드에 던져 넣을 것이다.

강 단 시 론

우리말을 아름답게 만들자



김 중 섭
〈국제교육원 국어학 교수〉

우리가 언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언어가 정신과 가장 가까운 구체적인 대상이기 때문이다.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 희노애락의 감정과 느낌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 우리는 언어를 배움으로써 언어 속에 내재된 문화의 정수를 이어 받아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언어는 사회집단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그 말의 구조에 의해 동일한 정신구조를 갖게 된다. 결국 언어는 민족과 국가의 정신과 혼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의 언어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확인시켜준다.

요즘 우리는 주변에서 말의 폭력을 쉽게 듣고 볼 수 있다. 폭언, 욕설, 매도의 말, 비속어, PC통신의 신조어, 무분별한 외국어나 외래어의 남용 등 수없이 잘못된 언어생활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다. 언어는 사회를 반영한다. 한 집단의 언어 사용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조직의 면모를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10월26일에는 제1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이 한국, 일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상 4개국에서 2천2백20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실시됐다. 또한 11월 2일에는 우리말이 미국의 대학입학 수능시험에서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처음으로 시험이 치뤄졌다. 그리고 10월1일에는 유네스코 국제자문위원회에서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을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이러한 대사건들은 올해 세종대왕탄신 6백돌, 훈민정음 창제 5백51돌을 맞이하여 더욱 뜻깊다고 하겠다.

지난해 말 신문기사 중에 나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미국과 영국의 "영어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영어 교습시장에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가 양보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영어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영국식 영어가 고전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어능력시험의 실시, 미국대학입학 수능시험의 제2외국어 채택은 우리말도 영어처럼 높은 가치를 지닌 언어상품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우리말을 세계의 보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껏 말은 공기와 물처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였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매일 쓰고, 읽고, 듣고, 말하는 언어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세련되게 다듬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말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또한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 이 장점을 살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자. 개인이나 국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은 우리의 우수한 언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다. 언어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은 개개인의 작지만 좋은 언어 사용으로부터 시작한다. 1997년 가을, 우리는 우리말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우리민족은 한글이라는 언어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21세기에 우리는 세계 중심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같은 희망찬 예감이 한글의 우수성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된 것은 확실하다.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를 다녀와서

양심수 석방으로 국민대화합 이룩

양심수 없는 나라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잊혀진 뉴스 그러나 끝나지 않은 논쟁이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길 기대 했던 논쟁 중에 한가지. 바로 양심수 문제이다. 양심수란 '폭력을 주창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신념이나 인종, 언어, 국적, 사회 경제적 지위 때문에 감금된 사람들'이라고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 인터내쇼날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국내 인권단체들은 그 수를 9백80여명이라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하고 있고 최근 김대중 야당총재의 '양심수 사면' 발언과 관련하여 양심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일 성공회대성당 회의실에서는 '양심수 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남영진 기자협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원순 변호사의 양심수에 대한 발제에 이은 손석준 한겨레신문사 노조위원장은 언론의 색깔논방에 대해 "양심수라는 단어가 신문에서 1단 기사로도 다루어지는 일이 거의 드물었는데 11월 1일 조선일보에서 1면 머릿기사로 'DJ집권시 양심수 사면'을 낸 후부터 가속화 되고 있다"며 "내용은 안기부나 검찰 중심의 반발기사 이어서 양심수를 다시 죽이는 식의 편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신문발행부수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등의 신문사가 대기업에 속해 있어 편집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며 "언론의 개혁 없이 사회개혁은 불가능하다"며 현 신문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인섭 서울대법학과교수와 강금실 변호사는 "엠네스티의 규정은 사상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에서만이 통용이 가능하며,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특수한 현 상황에서 보편적인 인권의 법을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기는 어렵다"며 "우선적으로 표현의 자유보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이어 국민승리21의 최규섭 정책실장은 "전 노씨 사면저지, 양심수석방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불거지는 현 상황에서 확실한 기구를 만들어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광주에서 발언한 양심수 석방 문제를 최근 번복한 것은 수구언론과 보수세력의 색깔론 시비를 피하려는 의도였을 뿐이며, 처음 김총재의 말이 본래의 뜻이다"는 말을 전했고 "양심수 출신이 가장 많은 당이니 만큼 양심수 문제에 대한 당론은 이미 정해 있다"며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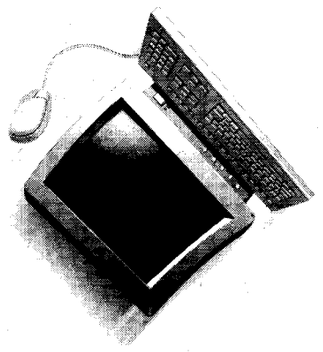
또한 양심수를 석방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를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제외, 죄질과 본인의 반성여부,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가" 등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 김대중씨는 그동안 색깔론으로 많은 피해를 본 장본인이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과 같이 색깔론 시비에 크게 관심을 갖는 이는 없다. 이러한 상황속에 사회 진보세력들 사이엔 '기존정당과 같아지려는 움직임으로는 정치의 진보도, 개혁도 얻기 힘들다'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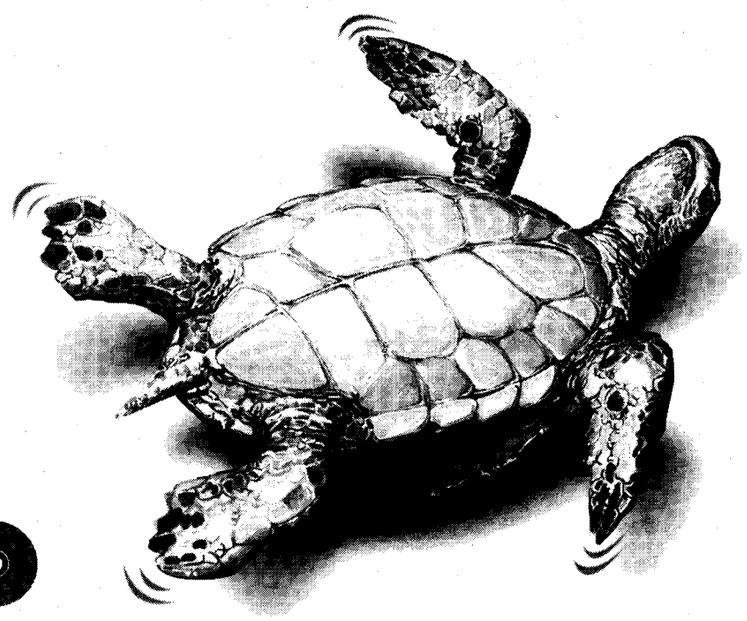
〈최현일 기자〉

HanQ 로고 해설
HanQ는 한솔에서 따온 Han과 품질(Quality)과 빠른 접속(Quickness)을 의미하는 영문이니셜 Q의 합성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돋보기 형상 속의 지구를 연상케하는 원구는 두한한 인터넷 세계를 보다 정확하게, 빠르게, 폭넓게 추구하는 한솔 텔레컴의 젊은 의지를 상징합니다.

Hansol
한솔텔레컴



뒤집힌다, 인터넷 세상!



HanQ START - KIT
· HanQ는 스타트 킷이 있어야 접속이 가능합니다.
· 접속 가능 지역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전주
(97.11월말 일산, 수원, 구리, 지역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START-KIT 판매 협력업체모집(문의 : 3457-5160)

느리고 비싸기만한 인터넷은 이제 그만 -
빠르고 쉬운 초저가 인터넷,
오늘부터 HanQ 세상입니다

▶초저가 서비스
연 20,000원의 이용료, 01439망 이용으로 전화 통화료도 35%나 절약됩니다.
▶한큐접속
국내 최초의 ATM/Frame Relay 방식으로 초고속 스피드 한번에 접속되어 여유로운 인터넷입니다.
▶고객만족형 Full Service
24시간 운영되는 고객지원센터, Web, News, Mail, 개인 Home Page 등의 부가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합니다.
▶쉬운 인터넷
애니메이션에 의한 서비스 안내, 인터넷 초보자를 위한 가상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21세기 광고매체
정적인 인터넷 환경에서 벗어난 재미있고 인터렉티브한 동화상 광고와 뉴스,날씨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학생 인터넷 이벤트 후원 사업 -
한솔텔레컴과 대학생들이 만들어가는 인터넷 세상
캠퍼스에서 펼쳐지는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행사에 다음과 같이 후원금을 지급합니다
●대 상 : 대학교내 학회 및 동아리
●선 발 팀 : 30개팀
●지원 내용 : 행사 후원금 50만원
●전형 방법 : 10월~11월간 대학가에서 개최 예정인 인터넷, 정보통신 관련 행사 계획서(A4 3매 이내) 온라인 접수
●접수 기간 : 1997년 11월 15일까지
●접수 방법 : 한솔 텔레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anQ.net)를 통한 E-mail (campus@HanQ.net) 접수(학교명, 대표자명, 연락처 기재)
●발 표 : 수시로 개별 통보
●참가자선물 : HanQ 스타트 킷(2만원 상당) 팀당 10매 제공
●기 타 : 선발된 팀은 행사 기간 동안 교내 행사장에 설치된 PC 가운데 1대를 할애하여 HanQ 접속에 의한 인터넷 운용을 하여야 합니다.
●문의 전화 : (02) 3457-5131

가입 신청
1.고객지원센터 : 080-211-1242(인투네투)
2.FAX : (02)3457-5193
3.홈페이지 : http://www.HanQ.net

HanQ
Just one click for internet

START-KIT전국구입처
●총판 M&A프로덕션 벽산정보산업(주) (02)279-0201(교환551,552)
●서울 (주)한미&C 3273-3524 그린정보통신 706-8477 (주)인폼C&C 703-5426 IC&C SYSTEM 713-2364 멀티랜드 711-5689 백두정보통신 3272-8620 스마트데이타시스템 718-3395 나진전자 701-7686 영컴퓨터랜드 706-2712 (주)정보벨 714-7445 (주)골든벨 702-1990 노벨시스템 3272-8352 율석미디어 715-3581 쌍마시스템 713-2289 B.N.T 704-1088 (주)태일시스템 715-5114 태일시스템(주) 914-0005 태성데이타시스템 719-2913 두레C&C 701-0617 흑자정보시스템 3452-9761 새벽맞이정보통신 716-2325 NEO SYSTEM 3473-1989 태광전자 714-1475 (주)비전컴퓨네트 3274-0002 테크라인 706-5165 (주)이디알 3271-7888 온라인코리아 835-2321 S.B.K 3600-107 해태&C 704-0065해태&C 3475-9283 (주)대우 759-2795 보람C&C 523-8107 (주)스카이정보 707-0921 카오스시스템 703-0277 멀티미디어랜드 3272-4333 베스텍 864-1182 뉴텍컴퓨터 925-0768 B.C.I 320-1565 새힘정보 292-9288,820-6442,969-0460 보람컴퓨터 959-2114 청심컴퓨터 450-3098 처음처럼시스템 974-1333 렉스컴퓨터 782-7081 윈애드정보 565-5222 ●부산 아인슈타인 861-3315 영테크정보통신 301-0008 서한컴퓨터 807-0078 송이정보 861-0887 ●대구 (주)에니넷 741-9595 해태&C 427-8333 나우시스템 582-4530 ●광주 마이컴프라자 522-9938 서남인포컴 523-0930 일신문고 274-8898 ●대전 (주)클림정보기술 862-8990 세림정보 488-7900 해태&C 934-6031 우림컴퓨터 821-5067 렉스소프트 862-8989 ●전주 LG C&C월드 75-7296 전북대 구내서점 70-2170 ●수원 다솜시스템 252-7448 대일정보 219-2293